

지도자는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동기 부여할 것인가(6)

- 느헤미야에 배우는 목회리더십
릭 워렌/ 새들백교회 목사

원리6 : 명확한 응답을 요청하라

단순히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입시키지 말고, 무엇인가 할 일을 주라. 무조건 사람들을 모으지 말라. 그러면 그들은 “별 일 아니군. 모두들 집으로 가세” 하고 말할 것이다. 17절에서 그는 “예루살렘이 황무하”니 “성을 중건하”자고 말한다. 그는 행동을 요청하고 있다. 그는 도움을 구하고 있다. 그는 명확한 응답을 요청한다.

느헤미야는 현실적이고도 낙관적이었음을 주목하라. 이것은 훌륭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균형이다. 느헤미야는 현실적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세 번째로 했던 일은 자정에 말을 타고 나가 사실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곤경 가운데 있는가를 직접 보았다. 그는 백성들에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다고 말한다. 그러나 또한 그는 낙관적이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설명한 후에 “모든 것이 무너졌으니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집으로 갑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이야기한다. “성을 중건합시다.”

지도자는 현실과 이상을 다함께 본다. 그들은 현실이 어떠한지를 보는 동시에 또한 무엇이 가능한지를 본다. 무엇이 가능한지만 보고 현실이 어떠한지를 보지 못하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다. 그는 몽상가이다.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현실은 보지만 이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라 회계사이다. 당신은 현실적인 것과 가능한 것 둘 다를 보아야만 한다. 이 둘이 잘 조화를 이루면 지도력을 탄생시킨다.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을 때 당신은 명확한 응답을 요청한다. 지도자들은 현실과 이상을 함께 보며, 현실로부터 이상을 끌어내기 위해 자신들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정말 위험에 처해 있는 대부분의 순간 우리는 “그저 나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어”라고 말한다.

"Possess Our Land(우리의 땅을 차지하라?)" 캠페인 기간 동안 나는 사람들에게 현금하도록 요청하는 일을 굉장히 싫어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일(job)이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누군가가 일어서서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시간과 돈, 수고, 힘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기 전까지는 이루어지 않았을 것이다. (계속)

: 편집자의 말/ 이 글은 목회전문월간지 [목회와신학] 2003년 2월호 184-193페이지에 실린 것으로서 [목회와신학]의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 (<http://www.durano.com/moksin>).